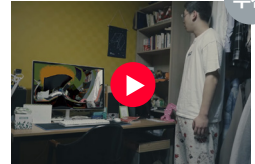


# 좋은 콘텐츠

이원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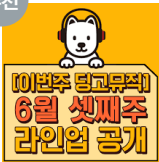
“단순히 ‘내 영상’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‘사람들이 보는 콘텐츠’가 돼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. 그래서 콘텐츠의 ‘재미’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”

인간적인 매력이 드러나는 채널을 좋아한다. 최근에는 유튜브의 ‘20세 상진’이라는 채널을 보고 있는데 학교생활, 가족, 여행 등 평범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요.



추천

추천



“등장하는 인물의 다른 이야기 혹은 다른 노래가 궁금해지는 콘텐츠가 ‘좋은 콘텐츠’라고 생각합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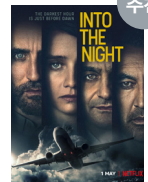
‘딩고 뮤직’, ‘온스테이지’.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정예원

정지현

“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를 떠나서, 누군가의 생각이나 행동에 ‘변화’를 줄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해요. 그런 의미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‘변화’를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.”

A 2. 너무 많아서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. 최대한 다양한 작품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<In to the night>를 보고 있습니다.



추천

추천



“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관심도나 방향을 캐치해서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 생각하고,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요.”

드라마 <나의 아저씨>를 추천합니다.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를 치유하는 좋은 힐링물인 것 같습니다.

하광석

(여자) 아이들

민니 = 드라마 <인간수업>이요.  
수진 = 아이들의 아이톡, 미드 베이비.



추천